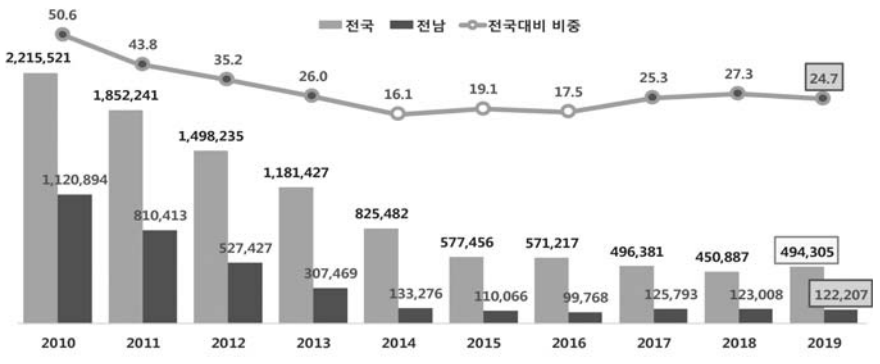
‘믿고 먹는’ 전남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 최고

전국 49만4305t 중 4분의 1 차지…3년 연속 출하량 최다

전남 농가 20% 친환경 농가…광주 418가구 특광역시 중 1위



친환경농업이 핵심 농업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남지역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이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00대 통계지표로 본 시도 변화상’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은 12만2207t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전남 출하량은 전국(49만4305t)의 4분의 1(24.7%)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1년 전인 2018년에 비해서는 소폭(-0.7%) 감소한 규모다. 20년 전인 2001년(6407t)과 비교해서는 77배 넘게(11만5800t) 늘었다.

2001년 7.3%에 불과했던 전남 친환경 농산물 전국 대비 비중은 지난해 24.7%로 3배 넘게 뛰었다.

전남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은 2014~2016년 3개년을 제외하고는 지난 2006년부터 전국 1위를 지속하고 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경북에 1위를 내줬고 2016년에는 경기도에 9685t 차이로 뒤졌다.

전남도는 지난 2004년부터 친환경농업 육성을 도정의 핵심 농업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넓은 경지면적, 양호한 기후여건 등을 기반으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친환경 농산물 열풍에 힘입어 전남 출하량은 지난 2010년 112만894t으로 최고를 찍은 뒤 하향세를 걷다가 2017년 반등했다.

지난해 전남 22개 시·군별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을 살펴보니 영암군이 1만7600t을 기록하며 전년 1~2위인 해남과 고흥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영암에 이어서는 해남(1만7072t), 신안(9560t), 나주(8878t), 무안(8730t), 함평(7413t), 진도(6695t), 영광(5617t), 담양(4824t), 고흥(4584t), 화순(4477t), 강진(4292t), 곡성(4167t), 장흥(3693t), 보성(3044t), 장성(2598t), 순천(2374t), 여수(1957t), 완도(1912t), 광양(1570t), 구례(906t)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은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가 수도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었다.

지난해 기준 전남 친환경 인증 농산물 출하 농가는 2만7354농가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남 전체 농가(14만4000가구) 5가구 중 1가구(18.9%) 꼴로 친환경 농가인 셈이다. 전남 친환경 농가는 2017년(2만6113가구) 이후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5년 전인 2014년(3만1578가구)에 비해서는 13.4%(-4224가구) 가량 줄었다.

전남과 인접한 광주 친환경 인증 농산물 출하 농가도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다.

지난해 친환경 농가는 418농가로 인천(285가구), 대구(129가구), 부산(79가구), 서울(76가구), 울산(71가구), 대전(41가구) 등 다른 특·광역시보다 월등히 많았다.

광주 친환경 농가는 2017년(570가구)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친환경 농산물은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해 생산한 농산물을 말한다.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으로 나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 벼 재배면적 지난해보다 2107ha 증가

15만6026ha 전국의 21.5%

올해 전국 벼 재배면적은 0.5% 감소한 반면 전남 면적은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축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벼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0.5%(4000ha) 감소한 72만6180ha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전남 재배면적은 15만6026ha로, 전국 면적의 21.5%를 차지하며 1년 전(15만3919ha)보다 1.4%(2107ha) 가량 증가했다.

재배면적 점유 비율은 전남이 가장 크고 충남(18.1%), 전북(15.3%), 경북(13.4%), 경기(10.3%), 경남(9%), 충북(4.5%), 강원(3.9%),인천(1.4%)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보다 벼 재배면적이 늘어난 곳은 전남과 대구(6.1%), 제주(3.9%), 인천(1.4%), 울산(0.3%) 등 5곳이다.

전국 벼 재배면적이 줄어든 데는 역대 가장 긴 장마로 인한 벼 침수, 쓰러짐 피해가 영향을 미쳤다고 농식품부 측은 설명했다.

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물에 잠기는 침관수 피해 면적은 2만2394ha, 벼가 쓰러지는 도복 피해 규모는 708ha에 달했다.

이에 따라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나 산지 쌀값(8월25일 기준)은 2019년 수확기 가격인 80㎏당 19만원과 비슷한 19만1872원 수준으로 안정적인 편이다. 이는 1년 전보다 2%(3732원) 가량 높은 가격이다.

농식품부는 현장 전문가 등과 함께 올해 벼 생육 상황과 기상 영향,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장마의 영향을 받는 조생종은 벼알이 여무는 등숙기에 들어섰고 다음 달 초·중순께 수확이 이뤄진다. 조생종은 벼 재배면적의 9%를 차지한다.

나머지 91%를 차지하는 중만생종은 일정 부분 생육이 회복됐으며 작황은 앞으로 일조량, 기온 등 기상 여건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급 분석을 바탕으로 오는 10월15일 이전에 수확기 대책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쌀값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산물 최대 30% 저렴하게 구입하세요”

aT, 포스몰에서 할인 행사

구매액 20% 상품권 증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9월 한 달 동안 농산물 할인 행사를 직거래 플랫폼인 포스몰(pos-mall.co.kr)에서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포스몰은 생산농가와 중소상인의 직거래 플랫폼이다. 이번 할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농할(농축산물 할인)갑시다’의 하나로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포스몰 농할관에서 1만원 이상 누적 구매하면 1인당 구입액의 20%를 모바일 직불결제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돌려 받는다.

aT 포스몰 농할관에서는 전문 MD가 전국 방방곡곡 발품을 팔아 선정한 한우, 한돈, 버섯, 잣, 잡곡류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또 추석선물용으로 인기있는 샤론세트(샤인머스켓·메론), 영광 참굴비, 표고버섯, 벌꿀 등 풍성하고 실속있는 선물세트를 구입할 수 있는 추석관을 운영한다.

최근 긴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 걱정이 많은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격이 급등한 농산물은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대한민국 농할갑시다’는 농축산물 수요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해 지난 7월 말부터 추진 중인 캠페인으로, 전국 9개 온라인 몰(마켓컬리, 네이버,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CJmall, 11번가, 이베이, 쿠팡)에 이어 9월부터는 전국 10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온라인몰도 대거 참여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우리농수산식품모음집’서 추석 선물 구매하세요

담양 한과 등 200여 제품 소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소개하는 온라인 홈페이지가 문을 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명절 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농수산식품모음집’(holidaygift.co.kr)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온라인 모음집은 코로나19 여파로 판로를 잃고 수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음집에는 담양 창평한과, 해남 유기농 쌀 등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촌진흥청 등이 추천한 우수 농식품, 식품명인 제품 등 200여개 상품이 소개되고 있다.

모음집은 쌀·잡곡, 축산, 수산, 김치·장류, 건강식품, 임산물 등 11개 제품군으로 구성됐다. 경영활동 경력이 3년 미만인 청년창업농이 생산한 제품 10여 개도 목록에 올랐다.

농식품부는 추석 전까지 다양한 제품을 계속 발굴해 추가할 예정이며, 모음집은 명절 이후에도 운영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태풍 피해 농가 일손돕기 ‘구슬땀’

김석기(가운데) 농협 전남본부장이 지난 5일 나주시 봉황면 배 농가 현장에서 태풍 피해 현황을 듣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추석 앞두고 직거래 장터도

농협 전남지역본부 임직원들이 태풍 ‘마이삭’ 낙과 피해가 집중된 나주 배 농가를 잇따라 찾아 수확을 도왔다.

농협 전남본부와 농협 나주시지부 임직원 40여 명은 지난 4~5일 나주시 봉황면 등 배 재배농가를 찾아 조기 수확과 병충해 예방을 도왔다고 6일 밝혔다.

나주지역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 100ha 넘는 면적의 낙과 피해를 봤다.

농협 직원들은 주말에도 낙과로 인한 병충해 전염을 막기 위해 일손 돕기를 펼쳤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일손을 도운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로 거리를 두며 방역 지침을 지켰다고 전남본부 측은 설명했다.

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이날 수확한 배를 직접 구매하고, 추석을 앞두고 여는 ‘전남농협 한가위 직거래 장터’에서 추가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일손돕기에 동참한 김석기 농협 전남본부장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없도록 전남농협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북광주농협, 호우 피해지역 긴급 논 항공 방제작업

북광주농협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긴급 항공 방제작업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방제는 벼 재배 농지 53ha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방제작업 비용 절반은 광주시가 지원했다. 광주시는 호우 피해지역 침수 벼 병해충 긴급방제를 위해 농협과 협력해 총 소요예산 4억원 규모의 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용 부담비율은 시비 50%, 농협 30%, 농가 자부담 20% 등이다.

방제 현장에는 박남언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과 김현중 생명농업과장, 강형구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

구상봉 북광주농협 조합장은 “먼저 방제작업 지원을 제안해 준 광주시에 관내 농업인을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